

8.15 광복 78주년 기념
이재유 노동운동 역사탐방

이재유선생 기념사업회/(사)소통과학신연구소

정성희 소통과학신연구소 소장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역사탐방

독립운동가 이재유 선생의 삶과 뉘를 찾아서

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09:30~13:00

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 앞 집결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주요 코스

(고문조사 중 탈출)서대문경찰서
(재판)경성지법 (구속)서대문형무소-경성형무소
(주거)연건동-동승동-신설동 빈민촌
(30년대 노동자투쟁)종연방직 등 (은신)-미야케 경성제대 교수 관사
(최후 활동, 체포) 창동-녹천역 등

안내 : 최창우 역사사랑모임 대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주최 : 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소통과혁신연구소 / 문의 : 010-9898-6150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역사탐방

독립운동가 이재유 선생의 삶과 뉘를 찾아서

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09:30~13:00

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 앞 집결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주요 코스

(고문조사 중 탈출)서대문경찰서
(재판)경성지법 (구속)서대문형무소-경성형무소
(주거)연건동-동승동-신설동 빈민촌
(30년대 노동자투쟁)종연방직 등 (은신)-미야케 경성제대 교수 관사
(최후 활동, 체포) 창동-녹천역 등

안내 : 최창우 역사사랑모임 대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주최 : 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소통과혁신연구소 / 문의 : 010-9898-6150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노동자-노동운동 상황

1920년대 조선 노동자 처지

- 5인 이상 공장, 1911년 252개-1921년 2,384개-1930년 4,261개 크게 증가. 그러나 농림, 수산업, 광업 등 기초산업과 농산물 약탈과 연관된 식품가공공업이나 방직 등 경공업에만 집중투자. 중화학공업, 특히 산업연관도가 높은 기계공업이나 대기업 극히 소수
-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농사개량과 수리관개시설 구축과 경지정리 등 토지개량.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빼앗아 갔고 조선 농민들은 수리조합 건설 조합비의 부담으로 토지를 내놓고 떠나. 그 결과 일본인의 토지소유 크게 늘어
-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1932년 만주 32만명, 일본 40만명 불안정 취업, 저임금 혹사
- 공장 노동자 1911년 14,000명, 1921년 5만명, 1931년 10만1천명으로 증가. 광산, 운수, 건설까지 합하면 임금노동자 22만명
- 조선인의 임금을 1로 본다면 일본인 남자는 2.32, 조선인 여자 0.59, 일본인 여자 1.01, 여성노동자, 매년 늘어 전체의 35.2%, 연소 노동자 7.5%.

1920년대 노동자 조직

- 운송 노동자들 주축 지역내의 여러 직종들 망라 지역별 노동조합=지역합동노조로 출발, 1920년대 중반 직업별노조로 전환
- 1920년 4월11일 결성 조선노동공제회(결성대회 당시 회원 678명-->1921년 3월 17,889명으로 급증)와 2월 조직된 조선노동대회--->1922년 10월15일 결성 조선노동연맹회와 1924년 4월18일 출범 조선노동총동맹--->1927년 9월7일 서면대회 형식으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독립.
- 1920년대 후반 지역별 노동조합연합회들과 산업별노동조합 조직. 원산노동연합회, 목포노동총동맹, 전남노동연맹, 전북노동연맹 등 26개. 지역의 직업별노조에서 전국 산업별노조로 발전, '전조선인쇄직공조합총연맹, 조선직공총동맹 전조선신문배달조합총연맹 등. 1920년~1930년 초 노동야학, 전국 수백개 설립
- 노동쟁의 1921년 36건 매년 증가 1925년 55건, 1929년 102건, 참가 노동자도 1921년 3,400여명, 1925년 5,700여명, 1929년 8, 200여명으로 급증

1920년대 노동자 투쟁

1921년 9월 부산 부두노동자 5천여명, 임금회복 약속 어겨 10일 동맹파업

1922년말 경성 양화직공 280여명, 임금삭감 저지 20여일 동맹파업

1923년 7월 경성 광희문 부근 4개 고무공장 백수십명, 임금인하 반대 폭행 감독 파면 동맹파업, 해고에 맞서 '아사동맹' 농성, 새로 참가 5개 공장 직공들과 경성고무여직공조합 결성/진남포 인천 정미공들의 임금인하와 관리자 횡포 반대 동맹파업

1924년 군산 정미공들의 파업과 정미소 습격

1925년 평양, 경성, 부산 등지의 인쇄공 파업 등으로 '전조선인쇄직공총연맹' 결성.
1926년 1월 목포 제유공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요구 동맹파업, 결사대 조직, 공장 습격파괴, 파업이탈 노동자 폭행, 방화 등 격렬한 투쟁 전개

1927년 영흥 노동자 총파업-조선인 우차부 구타 중상-파업 항의, 청년동맹 신간회 지지-10월21일 흑연광 220명 파업. '영흥인쇄공조합', '운수노동조합', '전영흥우차부조합' 500여명 동정파업, 12월2일 전기공장, 유기직공, 양조공, 곡물무역상까지 참가, 50여일만에 승리.

일제하 최대 지역총파업=원산총파업

1928년 9월 문평제유공장 120명 파업(저임금 장시간노동, 일본인 감독들의 멸시와 차별, 폭행에 대항), 조합 결성-'원산노동연합회'(노련) 가입

3개월 후 약속을 어기자 '문평운송조합'와 동맹파업. 부두노동자들, 이 회사 물품 취급금지. 사측, 노동자 해고 선언. 일본인 운송업자와 원산 상의, 노련 회원 불사용 통고. 1929년 1월23일부터 전 사업장 총파업.

노조간부 7~8명 구속, 시가지 엄중 경계, 함흥보병대 300여명 시가행진. 노련 공동 대중토론회 제의, 양복공 노조 등 파업 추가. 1월29일 규찰대 10명 검거, 노련 장부 압수. 노련 위원장 김경식 등 간부들 구속 및 가택 수색.

하루 두 끼 먹고 금연 등 눈물겨운 투쟁 계속. 분열책동, 2월19일 '함남노동회' 어용 단체 설립, 서울변호사 김태영 위원장 직무대리, 투쟁 포기. 경찰의 잇따른 검속, 파업 자금 바닥, 1만여 노동자가족 생계 파탄. 복업 유혹, 파업이탈 취업자 증가. 4월1일 함남노동회 사무실 4월3일 어용책임자 집 습격, 구타 중상. 수많은 노동자들 검속. 4월6일 무조건 자유 복업 지령.



원산총파업을 보도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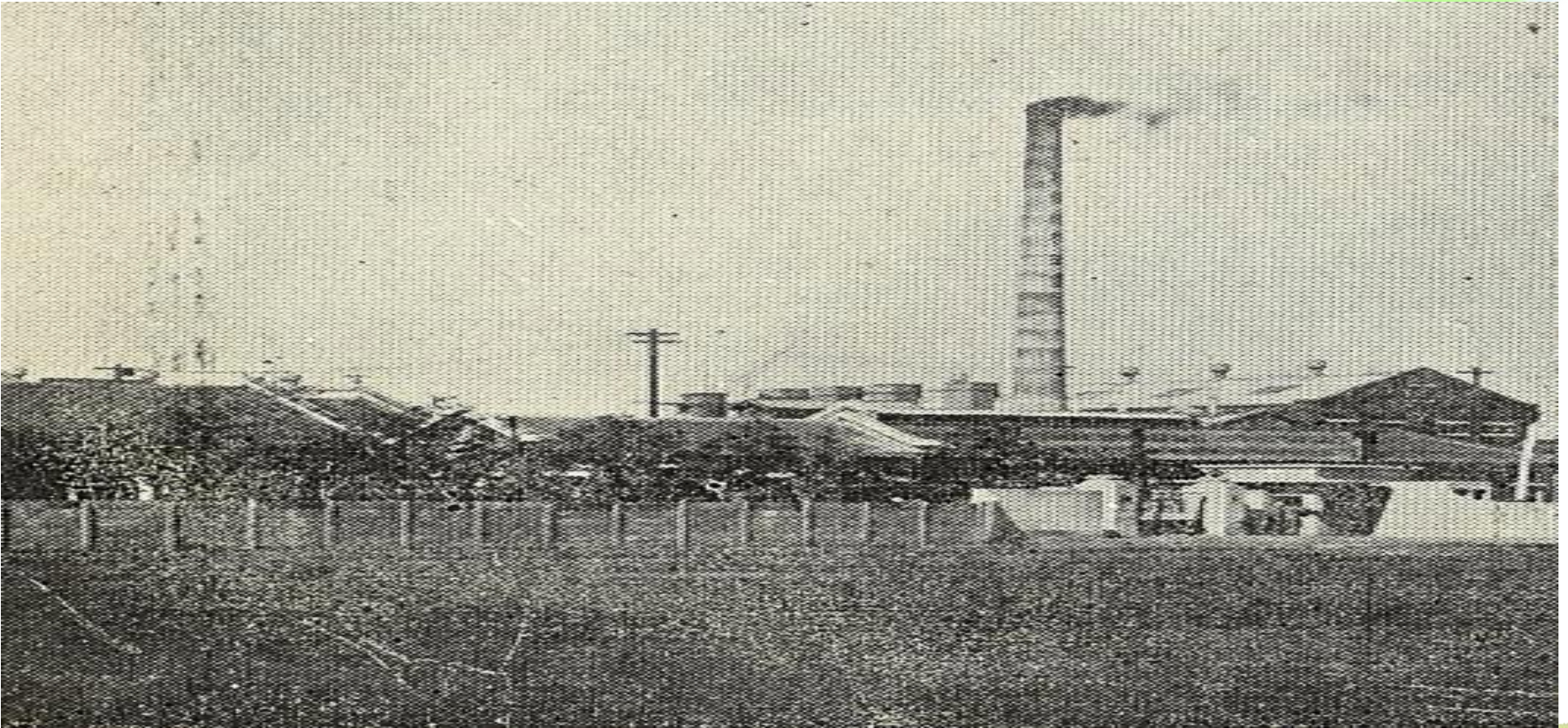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상황

- 1931년 9월 만주사변, 1932년 1월 상해사변, 1937년 7월 중일전쟁,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격
- 조선 병참기지화, 경찰 군대 증강, 언론·출판·결사·집회 자유 전면 제한, 사상범(1930년 38,779명, 1934년 66,055명)으로 검거 고문 구속, 皇國臣民 강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으로 340여만명 강제징용이나 보국대, 태평양전쟁 후 강제징병. 1944년 '여자정신대근무령'로 12세~40세 수십만명 군수공장 또는 일본군 성노예. 신사참배, 1940년대 모든 조선어신문잡지 폐간, 창씨개명 강요.
- 공장, 1930년 4261개-->1943년 1만 4856개, 경공업 중심-->중화학공업 중심, 1930~36년 공장노동자 10만 6천여명-->20만 7천여명, 광산노동자 3만 5천명-->16만 1천여명. 1943년 공장 노동자 54만 9천여명, 광산, 토건, 운수 등 총200만명
- 노동시간 12~14시간,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5~18시간 노동, 임금삭감(1929년 조선인 남자 성인 1일 최고임금 1원, 남자 소년공 44전-->1937년 각각 95전, 42전)

1930년대 노동운동 상황

- 1930 ~ 34년 5년간 투쟁건수 897건, 참가인원수 7만 7천여명, 생존을 위해 파업 태업만이 아니라 시위, 공장 점거, 공장 습격 등 새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 일제 폭력탄압에 조선노동자 폭력투쟁
- 경성방직공장 400여명 파업과 공장점거, 김제 노동자 6백여명 경찰서 습격(1931년 6월), 함북 웅기 하천 공사장 200여명 노동자 폭동과 식량 창고 습격, 진남포 삼상정미소 130여명 여공파업과 공장점거(1932년 1월), 인천 조선성냥공장 400여명 노동자 파업과 공장점거(1932년 5월), 진해 동양제사 여공 파업 농성 시위(1933년 1월), 부산 조선방직 400여명 파업(1933년 5월), 평북 정주유기 직공 파업과 폭행(1933년 9월) 등
- 공개 합법 노조활동 전면 금지, 노동쟁의 주동자 무조건 검거 투옥. 비합 혁명적 노동조합, 사회주의운동과 결합. 사상범, 중일전쟁 이전까지 1,913건 22,205명. 1931 ~ 35년 혁명적 노조운동 관련 70여건 1,759명 투옥.

경성방직 영등포공장(1937년)





(記事附圖)

日
本
製
織
機
房

場工門大東社會式株績紡淵鐘

地番一十六町設新府城京

番一六七一圖門化光話電

ウチホホカ略電信發







1933년 9월 종연방적 파업투쟁



1930년 후반~40년대 전반 노동자투쟁

- 노동자 투쟁, 중일전쟁 후 크게 줄어 1937년~1940년 4년 동안 노동쟁의 430건 24,967명 참가
- 1937년 2월 부산진 매립공사장 1,300여명 노동자 파업, 1938년 3월 해주 조선 시멘트 공장 600여 노동자 파업과 청진 부두노동자의 파업, 5월 평북 후창 광산노동자 노동절 파업 시위와 부산 동래 스미토모 광산노동자 파업, 6월 인천부두 노동자 1,200명 임금인상 요구 동맹파업, 12월 대구 각 직조공장 290여 노동자 파업, 7월 평양 제사공장 여공들의 착취와 장시간 노동, 성희롱 반대 동맹태업, 1939년 1월 평양 군화제조공장 임금인상 동맹파업, 3월 신의주자동차 운전수 100여명 파업, 8월 평양 동우고무공장 150여 파업, 10월 경성고무 여공 200여명 파업 등.
- 1940년대 태평양전쟁하의 극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 파업과 태업 계속. 반일 반전운동 적극 참여. 공사 방해나 방화, 폭발, 시설과 기계의 파괴, 집단으로 공장 이탈로 일제 항거. 일제 말기 무장봉기 준비, 만주항일무장투쟁 참가 증가.

불굴의 독립투사-주체적 노동운동가 이재유 연표

		<p>1924년 (20세) 4월 사립 보성고보 2학년에 편입학. 6월 사립 보성고보 자퇴. 아버지 사망.</p>	
<p>1905년 (1세) 8월 28일 함남 삼수군 별동면 선소리에서 출생.</p>		<p>1922년 (18세) 상경.</p>	
	<p>1907년 (3세) 어머니 이씨 사망.</p>		<p>4월 19일 조선노동총동맹 창립. 21일 조선청년총동맹 창립.</p>
<p>음사보호조약</p>			



4월 17일 조선공산당 결성.
 18일 고려공산청년회 결성.
 5월 12일 치안유지법 실시.
 9월 27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창립.
 11월 19일 노농총동맹의 분립 결의.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조공 일본연락부 설치.
 12월 13일 개성청년연맹 창립. 12월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



1925년 (21세)
 4월 개성 송도고보 4학년에
 편입.
 9월 동교 내에서 사회과학연
 구회 조직.

1926년 (22세)
 11월 5일 송도고보에서 퇴학
 처분.
 12월 도일.



1월 목포 재유공 파업.
 2월 노농총동맹 분립안 통과.
 6월 10일 6·10만세운동 발발.
 6월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 시작.
 제3차 조선공산당 조직.
 11월 정우회선언.
 11월 재동경 무산청년동맹 파벌주의 박멸 등 결의.
 일월회 해체.
 12월 노농총동맹, 조선노동운동에 대한 신정책 발표.

- 1월 신간회 강령 발표.
- 2월 신간회 창립. 제일 조선합동노동조합 정치부 신설.
- 4월 동경에서 조공 일본부 조직.
- 5월 신간회, 동경지회 발회식.
- 5월 27일 근우회 창립.
- 6월 동경·경도·대관 운동자들 총독부폭압정치 폭로강연회 개최.
- 7월 조공 일본부 해체.
- 8월 동경에서 총독부 폭압정치 폭로연설회 개최.
- 9월 17일 제일 각단체 연합 조선총독부정치탄핵동맹 결성.
- 12월 9일 제3차 조공 해산 결의. 6일 노농총동맹 분립.



- 1927년 (23세)
- 사립 일본대학 전문부 입학.
- 동경대 신인회가 주관한 노동학교 등록.
- 11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후보회원



- 1928년 (24세)
- 4월 조공 일본총국 위원.
- 5월 고려공청 일본총국 선전부 책임.
- 6월 경기도의 일본거주 노동 요시찰인으로 편입.
- 8월 제4차 조공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 1월 제3차 조선공산당 검거 시작.
- 4월 조공 일본부 일본총국으로 개칭.
- 6월 개정 치안유지법 실시.
- 7월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 시작.
- 7월 코민테른 제6회 대회.
- 12월 코민테른 12월 테제.

1930년 (26세)
11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
지법 위반으로 징역 3
년 6월 선고받음.

3월 신현중 등의 경성제대 반제동맹(~10월). 김일수·윤
자영·오산세 등의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4월 만보산 사건. 이종림·고경흠·권대형 등의 조선공
산주의자협의회.
5월 신간회 해소.
10월 태로 10월 서신. 조공 일본총국 일국일당원칙으로
일본공산당에 흡수.



1931년 (27세)
여름 북역 중 채석장 사역에
서 김삼룡과 만남.

1월 부산 조선방직 파업.
3월 조공 만주총국 코민테른
의 일국·일당원칙으로
중국공산당에 흡수.
8월 평양 고무공장 총파업.
이평산 등의 경성RS협의
회(~1931. 10)



1932년 (28세)
7월 경성형무소 이감.
12월 22일 경성형무소에서
만기출옥. 연건동 35
번지 이인행 방에 기
숙.

2월 김삼룡 출옥
5월 공원회 등의 적위대
(~10월)
10월 조정래, 변우식 등의
조선반제동맹 경성지
방 조직준비위원회
(~33. 1)
12월 권영태 입국.



9월 동대문 지역 섬유부문의 하위 트로이카 결성(이현상 이순급 권오경 등). 종연방적 파업을 계기로 경성콩그룹에 공동투쟁위원회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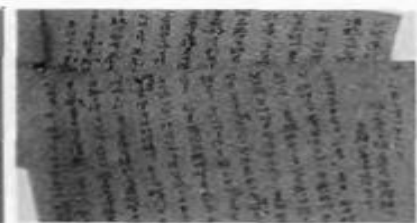
1933년 (29세)
 2월 김삼봉과 재회. 이인행, 이분성과 독서회 활동.
 3월 안병춘을 만남. 봄 서울 지방의 당재건을 위한 5대 슬로건 수립.
 4월 이경선이 학생운동의 여자중등학교를 맡음.
 5월 동숭동 29번지로 이주.
 6월 이현상과 만남. 김형선과 회담(~7월 초)
 7월 신설동 砂村의 빈민촌으로 이주. 조공재건 경성 트로이카 결성(이재유·안병춘·변홍대·이현상·최소복). 정태식과 만남. 용산지역 화학부문의 하위 트로이카 결성(변홍대·이종희·신덕균).
 8월 영등포 지역 금속부문의 하위 트로이카 결성(안병춘·안삼원·이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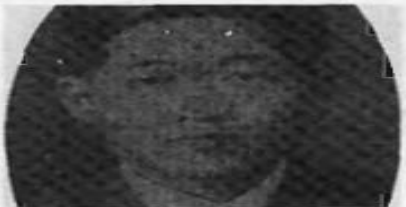


10월 공장내 활동방침 작성. 대공장에서 활동할 필요 편집 간행. 학교내 일상투쟁 작성.
 11월 안승락과의 회담에서 간도공산당. 피고인에 대한 구원운동 제안. 최소복과 함께 학생운동의 행동 강령서 작성. 이현상에 의한 동대문 밖 제사공장의 대표자회의 소집.



12월 미야케 교수와 만남. 군중집속시의 주의, 회합시의 주의, 일상생활의 주의, 체포 고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작성. 25일 이현상 체포.



5월 동덕여고보 동맹휴학.
 6월 편창제사 파업.(김형선 그룹과 만남). 중앙기독교청년학교맹휴
 7월 숙명여고보 맹휴기도.
 8월 중앙상공회사 파업. 소화제사 여공 파업. 고려고무 동맹고무 파업.
 9월 조선견직 여공 파업. 서울고무 여공 파업.(경성콩그룹과 만남.) 종연방적 파업. 용산공작소 영등포공장 직공대회 개최 (21일).
 11월 중앙고보 맹휴.
 12월 배제고보 및 경성여자 상업학교 맹휴

<p>1934년 (30세) 1월 이순금 · 안병춘 등과 함께 서대문 경찰서에 체포. 3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탈출기도 실패. 4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탈출하여 미야케의 동승동 대학관사에서 은신. 5월 17일 정태식 체포. 21일 미야케 체포에 따라 관사에서 탈출. 6월 도로공사 인부로 생활(~8월). 8월 박진홍과 신당동에서 동거. 9월 자기비판문 완성.</p>	<p>1월 김삼룡 · 이백만과 함께 인천에서 노동운동. 3월 이관술 보석술소. 4월 경성콤그룹에서 메이데이 팸플릿 및 격문 발간, 인쇄. 5월 경성콤그룹에서 기관지로 프롤레타리아 발간. 5월 19일 권영태 체포. 12월 27일 경성지법에서 미야케 징역. 3년 선고받음.</p>	<p>1935년 (31세) 1월 이인행 · 박진홍 · 박영출 체포. 신당동의 아지트에서 탈출. 5월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 정착(~36. 12. 25.)</p>	
			<p>7월 25일 코민테른 제7차 대회(인민전선전술 채택). 8월 10일 권우성 · 정재철 체포. 9월 안승락 체포. 11월 7일 김승훈 체포.</p>
<p>10월 유순희 · 공성희 등 체포(용산서사건). 이관술 · 박영출과 만남. 11월 학교 내의 활동기준, 공장 내의 활동기준 작성. 12월 조공재건 경성재건그룹 결성. 세말 캠페니아 투쟁방침서 간행.</p>			



1936년 (32세)
 3월 서구원과 만남.
 6월 경성공그룹에 좌익전선의 통일을 위한 경성지방 협의회를 제안. 조공재건 경성준비그룹 결성.
 7월 8·1감파니아의 구체적 실행방법 작성.
 8월 최호극과 만남.
 10월 적기 제1호 발행.
 11월 적기 제2호 발행.
 12월 적기 제3호 발행.
 25일 양주군 노해면 창동에서 체포.



12월 사상범보호관찰령 제정.
 12월 김희성 등 공그룹 후계 조직 체포.
 12월 25일 미야케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

1937년 (33세)
 4월 23일 검찰 송치.
 5월 1일 예심에 회부.
 5월 박진홍, 1년 6월 복역 후 출옥.
 6월 23일 안병춘 2년 복역 후 출옥.
 7월 19일 이관술과 연락중 이순금 체포. 21일 박진홍 체포.
 9월 6일 기소중지로 박진홍 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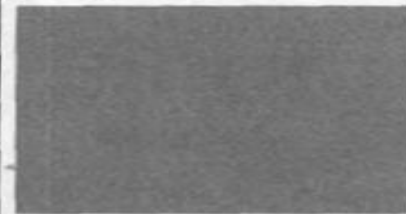


1월 미야케 일본으로 귀국.
 7월 권우성·김승훈·안승락·정재철의 공판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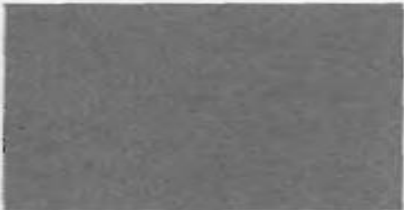
1938년 (34세)
 2월 초순 예심 종결.
 6월 24일 제1회 공판.
 7월 5일 제2회 공판.
 7월 12일 제3회 공판.
 12월 경성공그룹 결성.
 (~41.12.)



1939년 (35세)
 4월 7일 김희성 · 박인선 등
 의 공판 선고.



1944년 (40세)
 10월 26일 청주보호교도소에
 서 옥사.



1942년 (38세)
 8월(혹은 9월) 형기만료.



1941년 (37세)
 4월 치안유지법 개정으로 예
 방구금제도 신설.



이재유와 그의 동지들

1930년대 노동운동 지도자 - 이재유

1905년 8월28일 함경북도 삼수군 출생, 3·1 운동 후 상경, 막노동, 보성고보 중퇴, 1925년 개성 송도고보 입학, 사회과학연구회 조직, 동맹휴학 주동, 1926년 11월 퇴학, 1927년 일본대학 전문부 중퇴, 신간회 동경지회·동경 노조 활동, 70여 차례 검속, 맹렬 활동, 4차 공산당 사건으로 1928년 8월 체포, 3년6개월 형 선고

1932년 12월 경성형무소 만기 출옥, 조선의 현실에 기초한 주체적 운동노선과 '현장속으로' 조직방식 제시, 김삼룡·이성출·변홍대·안병춘 등 지도, 서울 인천 등지에서 본격적 노동운동, 1933년 하반기 편창제사·중앙상공회사·소화제사·고려 고무회사·동명고무회사·조선견직·서울고무·종연방직·경성제사·용산공작소 영등포공장 등 서울의 주요 기업의 연쇄 파업에 큰 영향, 1933년 9월 노동현장을 기반으로 '경성 트로이카' 결성

1934년 1월 이재유 체포, 탈주와 피신,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준비그룹' 결성, 1936년 10월~12월 <적기> 1~3호 발행·배포, 12월 25일 체포, 약 4개월간 혹독한 고문취조, 1937년 4월23일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 1942년 징역 6년 형기 만료, 비전향으로 청주보호교도소 재수감, 1944년 10월26일 옥사, 그의 나이 40세



이재유 최후 구속과 김일성의 국내 진공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권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1. '보천보의 불 길(1)

“1937년 5월초였다. 나는 놀라운 국내소식을 또하나 받아안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거물 리재유가 체포되었다는 《매일신비》특간호의 상보를 접하였던 것이다. 옹근 4면짜리의 대대적인 특집이었다...신문은 리재유를 《조선공산운동 괴멸의 최후진》이니, 공산주의운동 《20년 력사 최후 거물》이니 하면서 그의 체포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영영 끝나게 되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다...그는 담력도 있고 림기응변하는 기지와 변장술도 있어 붙잡힐 때마다 매번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 이상의 탈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라고 단언하였다...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모략선전은 기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고있었다...여러차례에 걸친 대검거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던 개별적공산주의자들마저 리재유의 체포로 활동의 종말을 고했다고 하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말할수 없을 정도였다...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자는것이였다...조선민족의 녀을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집중되고 있었다....

(이 지리한 예측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조선의 장부라고 할수 있으랴. 어서 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속에서 시달리는 민족의 녀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은 조국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머리를 지배한 생각이였다...”

이재유 체포 사진, 김일성 보천보전투 기사

逮捕當時李載裕×印의出動警察部變裝刑事隊一同



보천보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7년 6월 6일자 기사.

경성 트로이카 조직도



이재유



안병순
(금속부문)



이현상
(석유부문)



변홍대
(화력부문)



최소복
(남자노동부문)



이경선
(여자노동부문)



정태식
(대학부문)



김삼룡
(부두노동자부문)

일제 후반 사회주의 독립운동 지도자- 이관술

- 1902년 4월 25일 울산 태생, 1923년 서울 중동고보 거쳐 일본 동경사범 유학, 1929년 귀국, 32년까지 동덕여고보 역사-지리 교사, 그 제자=이순금 이효정·박진홍·임순득·김재선·이종희 이경선 등
- 1929년 11월 광주학생투쟁 전국 확산 계기로 사회주의 실천활동 본격 돌입, 비밀 독서회 지도, '경성반제동맹' 결성, 1933년 초 이관술 등 43명 구속, 혹독한 고문-병보석으로 가석방
- 1934년 9월 이재유 만나 박영출과 경성트로이카 지도부 구축, 1935년 1월 박영출 등 42명 검거, 이재유와 함께 경기도 양주군 공덕리(현 서울 노원구 창동) 정착, 18개월 은신, <적기(赤旗)> 발간 배포 등 비밀활동
- 1936년 12월 25일 이재유 체포 후 도피,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전개, 1939년 1월 여동생 이순금 만난 후 전국 순회 김삼룡(충주)·정재철(부산)·권우성(마산)·이기성(부산) 등 만나 '경성콤그룹' 결성, 기관지 <꼬뮤니스트>(1939년 9월) 발간 배포
- 경인지역, 남부-북부 지방까지 조직 확대 후 박헌영 영입, 그 후 함경도 탄광 비료공장 노동운동 지도, 수배 6년 만 다시 체포, 고문으로 얻은 병으로 1943년 말 3개월간 가석방, 기간 끝나자 사라져 충청도 전라도 오가며 활동하다가 해방 맞아
- 조선공산당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 미군정, '조선정판사 화폐위조사건' 조작, 인쇄소 일부 직원들이 일제 지폐원판 빼돌려 우익계 인사들에게 판 것을 조선공산당에 뒤집어씌우고 고문으로 허위자백 받고 입수한 증거도 조작, 무기징역, 대전교도소 수감, 한국전쟁 직후 1950년 7월 3일 골령골로 끌려가 총살



1930년대 노동운동가 - 김삼룡



1910년 충주군 엄정면 용산리 소작인 6남 중 3남 출생, 1922년 용산리 공립보통학교(엄정초등학교 전신) 늦게 입학, 성적 1등, 담임 이형제 선생에게 민족의식·계급의식 눈 떠, 윤병익(한국전쟁 때 엄정면 인민위 활동) 등과 청년운동, 1928년 2월 졸업 후 이형제 선생과 상경, '칼토페'(고학당) 입교, 김병선과 독서회 조직, 1930년 11월 체포·구속, 1년2개월 첫 징역

1931년 여름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재유 만나, 1932년 2월 만기 출소, 귀향, 청년모임 추진

1932년 6월 인천 부두 하역인부로 취업, 1933년 2월 이재유 방문, 9월 이재유 등과 경성트로이카, '조선공산당재건운동 경성그룹' 결성

1933년 11월 이상철 이백만 이석면 등과 인천적색운수노조 건설 준비, 1934년 1월 이백만 체포 후 서울 변두리 은신, 안병춘과 같이 이재유 은신처 찾았다가 체포 구속, 1937년 출옥 후 귀향

1939년 1월 이관술이 이순금과 찾아와 조직책임 맡겨 경성콤그룹 조직, 상경 및 각 공장 세포 조직 복구, 태창직물·경성전지·경성방직·용산철도공작소·조선인쇄소 등 노동운동 지도, 1940년 12월 또다시 체포·구속

1945년 8월15일 해방과 함께 전주교도소 출소, 상경 후 조공 재건 참가, 중앙당 조직국 부책임자 겸 서울시당 위원장, 1946년 11월 초 3당 통합 위해 평양에서 남-북로당 정치위원들과 연석회의 참석, 1948년 3월 중순 38선 넘어 남로당과 북로당의 합동정치위원회 참석, 1948년 7월 이승엽이 월북하자 김삼룡은 남로당 최고책임자, 김삼룡 중심의 이주하·정태식 3인 지도부

1950년 3월15일 동지 안영달의 변절, 밀고로 체포 구속, 묵비권 행사, 1950년 5월17일 특별재판에서 사형선고, 1950년 6월 26일 총살

1939년 태창직물 투쟁 - 이옥숙(김삼룡 부인)



“합동노조 산하 서울시내 20개 중요 공장들을 망라한 금속노조분회·섬유노조분회·출판노조분회 등 활동. 대표적인 활동으로서는 1939년 10월 태창직물주식회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주병포는 김삼룡 동지와 함께 수리공으로 변장하기도 하며 태창직물주식회사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각성시키고 묶어 세우며 핵심들을 키워 나갔다. 마침내 1천200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숙식조건 개선 등 요구를 내걸고 5일간 파업을 벌여 승리. 이 파업투쟁을 나는 직접 목격했기에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다. 파업투쟁이 승리한 후에는 투쟁에서 검열된 여성노동자들로 공장노조분회를 조직. 그중에는 김 동지의 부인이 된 여성도 있었다. 그들의 결합은 태창직물주식회사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속에서 맺어진 굳건한 사랑이었다.”(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수기)

1930년대 노동운동가 - 이현상

1905년 9월 27일 충청남도 금산군(당시 전라북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에서 부농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출생, 1921년 금산보통학교 편입, 졸업 후 고창고보 입학
1925년 중앙고보 편입, 1926년 6·10 만세운동 학생시위 주도, 체포, 6개월 구속 후 석방

1927년 봄 상하이 밀항, 귀국 후 금산 청년 조직화, 1928년 보성전문 법과 입학, 투옥, 중퇴, 고려공산청년회, 신간회, 서울청년회 활동

1928년 고려공청 학생과학연구회 관련 체포 구속, 4년 복역, 형무소에서 이재유 김삼룡과 교류

1933년 초 이재유 김삼룡과 경성트로이카 결성, **동대문 섬유부문 하부조직**, 본격적 노동운동 전개, 1933년 말 체포, 구속, 4년 복역

1938년 출옥 후 김삼룡, 이관술, 정태식, 김태준 등과 경성콤그룹 결성, 1940년 체포, 구속, 1942년 10월 20여 일간의 단식투쟁 후 병으로 가석방, 그 후 덕유산 은둔생활

1945년 재건파 조선공산당 건설 참여, 1946년 11월 남로당 결성 참여, 1947년 전평의 허성택, 박세형과 함께 체포, 두 달 만에 석방, 1948년 남북연석회의 참석 월북, 강동정치학원 입교, 이주하와 내려와 지하활동

1948년 여순항쟁 이후 지리산 유격대 활동, 남부군 사령관, 1953년 9월 17일 빗점골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살



1930년대 노동운동가 - 박영출

- 1908년 부산 동래 출신
- 1921년 동래고보 입학, 동맹휴학 가담, 1925년 무기정학 처분 후 자퇴
- 1927년 일본 건너가 야마구찌현 고등학교 이과 입학
- 1930년 졸업 후 교토제국대학 입학, 재일조선인유학생 강년회에서 조선독립 호소하다가 검거,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1934년 교토제국대 경제학부 졸업 후 일본공산당 당원, 대학내 조선인그룹 조직책임자
- 귀국 후 서울에서 기자, 1934년 11월 이재유 지도 경성재건그룹 참여, 노동부문 담당, 12월 노동자투쟁 주도
- 용산지역 적색노조 조직하가 1935년 7월 검거, 징역4년 선거, 대전형무소 복역 증 고문후유증으로 사망



1930년대 노동운동가 - 안병춘, 이병기

안병춘



- 1910년 경기 용인 태생, 1928년 3월 영등포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양조장에서 일하다 해고,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학관 고등과에 다니면서 독서회 조직화, 보성고보 급사로 사회주의 독서회 참여, 1931년 8월 동대문서 검거
- 1933년 3월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공장에 취직, 9월경 이재유 그룹 영등포지역 적색노동운동 참여, 경성트로이카 영등포 하부조직에서 경성방직, 천북전기공장에 산별노조 결성 시도
- 1934년 1월 이재유 은신시키고 연락원으로 활동하다가 검거
- 1935년 7월 징역 2년 선고, 출옥 후 이관술과 연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전개

- 이병기
- 1906 안동 태생, 어려서 한문 수학
- 1932년 2월 '대구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 검거, 훈방
- 1933년 8월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노동자, 이재유그룹 참여, 적색노동조합 조직 노력
- 1934년 2월 일경에 검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930년대 노동운동가 - 변홍대 이성출

변홍대

- 1912년 경기 양평 태생, 1927년 3월 양평공립보통학교 졸업, 1928년 양평 평활소년회, 1929년 10월 양평청년동맹 서무-재정부장, 서울청년회 참가, 1930년 4월 중앙청년동맹 복구 집행위원장, 5월 서울 양평 연락 임무 수행, 일본경찰 주목, 7월 신간회 민중대회 연루, 한때 검거, 1931년 4월 양평농조조직위 의안작성부-연락부 담당, 양평농조 창립대회 준비 중 검속, 곧 석방 후 구속자 석방운동, 10월 양평 여주 농민운동단체 통합 시도, 1932년 2월 결렬. 4월 양평적색농조준비회 갈산면지부 책임자
- 1933년 4월 이재유 지도 용산 공장지대에 파견-각 공장그룹 활동, 8월부터 소화제사, 서울고무, 조선견직, 종연방직 파업에 동맹파업위 조직, 1934년 5월 동대문서 검거, 1935년 12월 징역 3년 6월 선고
- 1945년 9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경기 양평군 대표로 출석,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경기 수원군 대의원, 1946년 11월 남노당 경기도당 참가

이성출

- 1911년 경기 양평 태생, 1927년 3월 양평공립보통학교 졸업, 농업 종사하면서 와세다중학 강의를 독학, 1928년 신우사 사무원 취직, 양평 평활소년회 참여, 1929년 10월 양평청년동맹 결성 참여, 서울청년회 중앙청년동맹 상무집행위원
- 1930년 일경에 검거, 형무소에서 이재유 만나
- 1931년 4월 양평농조준비위 결성, 서무부위원 담당, 일경에 한때 구금, 1932년 여주 농민계 조직 노력, 『조선일보』 양평지국장,
- 1933년 4월 이재유그룹 지도하 양평·여주 지역 농민운동 통일 시도, 1934년 5월 검거, 1935년 12월 징역 2년 선고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 - 박진홍



함경북도 명천 출생, 1914년~한국전쟁

1928년 동덕여고보 입학,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연대투쟁, 1931년 교육 환경 개선 동맹휴학, 퇴학당함. 이후 용산제면·태창직물 '여공' 취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전개.

1931년 12월 '경성학생RS협의회', 1934년 1월 '이재유 사건', 1935년 1월 '용산적색노조사건', 1937년 12월 '조선공산당 경성준비그룹 재건 사건', 1941년 8월 '경성콤그룹 사건' 구속, 1944년 10월 출감.

1936년 감옥에서 첫 남편 이재유의 아이 철한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사망. 이재유는 1944년 10월 26일 옥사. 1944년 11월 두번째 남편인 경성제대 교수 김태준과 연안행. 1945년 4월 도착했으나 일제 패망 소식을 듣고 걸어서 11월 하순 서울 귀국.

부녀총동맹 문교부장 겸 서울지부위원장, 남편 김태준은 1949년 지리산 유격대에 격려공연 갔다가 붙잡혀 총살. 박진홍은 월북, 초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평양 최고재판소 판사로 일하다 한국전쟁 와중에 사망.

1930년대 학생운동가 - 최소복

- 1911년 대구 태생, 대구공립보통학교 4학년 재학중 단식투쟁 사건으로 퇴학
- 1932년 1월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 결성 참여, 5월 서울에서 경성고등예비학교 입학,
- 1933년 졸업 후 경성전기학교 입학, 이 무렵 이현상과 함께 학생층 활동
- 그 후 이재유그룹에 참여, 상부뜨로이까에 배속, 5~6월 동덕여고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 동맹휴교 지도
- 9월~12월 「학생운동의 행동강령서」 작성, 11월경 중앙고보, 배재고보 동맹휴교 선동, 반제동맹 결성 참여
- 1934년 1월 경기도경찰부에 검거, 1935년 12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1937년 4월 서울에서 광고미술사 개업, 공산주의협의회 결성 참여, 총책임-노동부 담당
- 6월부터 왜관에서 독서회 개최, 농민운동-반전반제운동 방침 토의

1930년대 여성노동운동가 - 이순금

1912년~? 울산 출생, 이관술의 이복 여동생.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 1929년 4월 서울실천여학교 입학, 1년 뒤 동덕여고보 전학. 광주학생운동 1주년에 맞춘 백지동맹 주도. 반제동맹 동덕여고보 책임자, 1932년 3월 졸업 후 영등포 제사공장 취업, 노동운동.

경성RS협의회 사건에 연루, 검거, 불기소처분. 1933년 2월 서울 적색노조에 참여, 체포 3월 경성지법 기소유예. 이재유의 하우스키퍼로서 동거. 경성고무공장 여공들 규합 적색노조 조직, 1934년 1월 검거 구속, 1937년 7월 만기 출옥.

1939년 경성콤그룹 참여. 1941년 9월 수배 받았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 중지. 박헌영과 함께 광주로 피신, 연락활동에 종사.

1945년 8월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위 결성에 참여, 9월 조선공산당 중앙위 서기국원.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참가, 중앙위원.

11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부녀부.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직부원. 1955년 박헌영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 - 이효정

1913. 7. 28 ~ 2010. 8. 14. 경북 봉화 독립운동가 가문 출생.

동덕여고보 시절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 박진홍 등과 학교운동장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종로서 연행. 시험거부 백지동맹 주도 무기정학.

졸업 후 학원 선생, 종연방직 여성노동자 비밀 지도. 이재유 경성트로이카 가담. 1933년 9월 21일 종연방직 파업 투쟁 지도. 10월 17일 체포 고문. 1935년 11월 경성지방좌익노조 준비회 활동 중 검거, 약 13개월간 옥고. 출소 후 울산 보성학교 교사 근무. '교원 노조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던 사회주의계 항일운동가 박두복과 혼인.

남편 박두복은 1945년 건준 울산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남로당 사건'에 연루 수감 후 월북. 1950년대 말 남파활동 후 다시 월북, 이효정은 연좌제로 평생 고통을 겪었음.



延大 國史館 於 於 撮影 保存原板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 - 이종희

1912년 충남 아산 출생

동덕여고보 재학 중 이관술의 지도 아래 비밀독서회 참가

1931년 경성학생RS(독서씨클)협의회 사건으로 검거, 1932년 2월 송치

출감 후 중앙고무, 동수제사공장에 들어가 노동운동

1933년 8월 이후 이재유 그룹의 용산지역 하부 트로이카 활동

별표고무공장 파업투쟁위원회 만들어 파업 주도

섬유 화학 중심으로 1933년 9월 서울고무, 종연방직의 파업에도 관여

1936년 6월 이후 만주로 건너가 신경에서 이평산, 이종국(남동생)

등과 사회주의운동 전개

1937년 3월 몽고지방에서 검거되어 서울로 압송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 - 이병희



서울 출생 1918.1.14~2012.8.2

조부 이원식, 동창학교 설립하여 민족교육. 부친 이경식, 1925년 9월 대구 비밀결사 암살단 단원으로 활약

동덕보통학교 졸업, 부친의 중국 망명 등 집안형편이 어려워 16세 때 경기여상 중퇴, 1933. 5월 경부터 서울 신설동 종연방직에 근무, 1936년 김희성·박인선 등 동지들과 노동운동 중 체포. 2년4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39년 4월 14일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옥.

1940년 북경으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해 문서를 전달하는 연락책

1943년 국내에서 북경으로 건너온 이육사와 독립운동을 협의하다 9월 체포, 북경감옥에 구금. 이어 잠시 국내로 잠입 이육사도 잡혀 함께 옥살이.

1944년 1월 11일 석방 후 1월 16일 이육사가 옥사하자 시신과 유품을 정리하여 국내유족에게 인도. 이효정은 이병희의 조카.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들 - 이경선



- 1914년 경기도 시흥 태생
- 동덕여고보에서 1932년 이관술 지도 아래 적색독서회 조직
- 1933년 1월 종로경찰서에 검거, 훈방
- 3월 동덕여고보 졸업, 이화여전 입학, 곧 퇴학 처분
- 10월부터 이재유그룹 참가, 숙명여고보, 동덕여고보 독서회 - 동맹휴학 지도
- 그후 조선직물주식회사 인견공장에 취직, 동지 획득
- 1935년 12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복역
- 1946년 12월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집행위 산하 선전부 참여

1930년대 학생운동가-노동운동가 - 정태식



- 1910년 충북 진천 태생, 1929년 3월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4월 경성제대 입학
- 1933년 3월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조교로 경제연구실 근무, 4월 독서회 조직
- 1934년 4월 경성법률전문대학에 반제반, 문화반, 구원반 조직, 각 공장에 적색노조 조직 노력, 5월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 참여, 각 식료품부 책임자, 공청부 책임자로 선정, 34년 5월 검거, 1936년 11월 징역 5년 선고, 출옥 후 경성콤그룹 참여, 인민전선부 소속
-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 경제부원,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주필 겸 정치부장,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참석-중앙위원
-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 11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 . 조사부장, 「노력인민」총책임, '이론진 블록' 책임
- 박헌영 월북 이후 남로당 김삼룡 이주하에 이어 제3인자, 1950년 4월 검거-5월 징역 20년 선고, 한국전쟁 때 서울에서 「해방일보」복간-논설위원
- 북한 농림성 기획처 부처장, 잡지 「인민」교정부원

조선 노동운동 지원 경성제대 교수 - 미야케

-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1899년 오사카 태생, 동경제대 경제학부 졸업-법정대학 강의, 대학시절 마르크스 경제학 심취, 1927년 4월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교수 부임, 이강국, 박문규, 최용달 등 조선인 학생 씨클 '경제연구회' 지도교수, 1929년 2월~1931년 4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연구활동, 독일공산당 주도 혁명적 분위기 섭취, 저명한 일본 공산주의자 가타야마 센, 구니사키 데이 등과 교류, 1929년 7월 말 2회 국제반제동맹대회 일본대표 일원으로 참석
- 1930년 9월 조선사정연구회 지도, 자료수집-독서회, 많은 조선인 운동가 만나 - 경성 노동운동 주도 이재유 그룹과 국제선 권영태 그룹, 형평전위동맹 활동가 이남철 등 만나
- 1933년 겨울 동숭동 관사에서 정태식 소개로 이재유 만나 운동 방침 논의, 이재유-권영태 조직 연결도 미야케 통해, 4월 서대문서 탈출 이재유를 자택 다다미방 토굴 파서 숨겨줌
- 1934년 5월 21일 검거(5/17 정태식 체포), 12월 3년 선고, 전향서, 36년 12월 25일 가출옥 후 명동에서 '가메야(龜屋)' 고서점, 1937년 1월 귀국, 고물상과 신문판매점 등으로 생계 유지, 종전까지 특고 감시



李載裕 숨겨준 三宅敎授官舎

교훈

이재유 선생의 가르침

1.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결합하고 국제당의 권위가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 노동운동 노선
2. 노동자대중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대중의 요구를 노동자대중의 힘으로 실현하는 변혁적 대중노선
3. 수직적 오르그가 아니라 수평적 트로이카의 조직생활로 대중 속에 들어가 깊이 뿌리 박는 당 건설 노선
4.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투쟁하는,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활동가의 공부하는 자세
5. 체포 고문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불요불굴의 혁명가 정신

일제하 노동운동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제하의 조선총독부 직접통치, 친일파 득세, 저임금 장시간노동 멸시차별 노동자들 -->오늘의 용산 대통령실 간접통치, 친미친일파 득세, 비정규직 양산 및 차별 심화, 청년실업 양산
2. 일제하의 노동자들, 임금 노동조건 개선, 멸시차별 시정+조선독립 및 평등사회건설 -->오늘의 노동자들, 임금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철폐, 실업해소 등+자주민주변혁, 자주평화통일
3. 일제하의 노동자들, 노동공제, 노동야학, 지역별 직업별 산업별 노조-비합법 혁명적 노조-->오늘의 노동자들, 합법 업종산업별 지역별 노조, 노동공제회, 비정규직센터 등
4. 일제하의 노동자들, 태업, 파업, 농성, 습격, 집단 이탈, 일부 항일무장투쟁 참여-->오늘의 노동자들, 단위사업장 업종산업별 전국적 파업, 농성, 집회, 시위, 온라인투쟁, 촛불항쟁+선거의회투쟁 참여
5. 일제하 노동자들, 조공과 공청, 반제-사회주의 그룹, 신간회, 조국광복회, 건국동맹 등 연합단체 참여-->오늘의 노동자들, 진보정당들+ 시민사회단체들+매시기 연대연합체 -> 현재 반윤 탈미 범국민연대 참여



끝

